



2면

도·시군 부단체장들, 주요 현안 논의

전주매일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음 12월 17일) 제39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상생 금융 생태계 구축 '속도전'

도, 국민연금공단과 간담회... 지역균형발전 해법 모색
KB·신한금융 전북 이전 등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성숙
국제금융센터 건립·전북 자산운용사 육성 등 과제 발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만나 지역 상생과 금융생태계 조성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 이전 효과를 위한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잇따라 자산운용 계열사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발표하면서 전북 중심의 금융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기금운용 인력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 △전북국제금융센터 빠른 건립 추진 △전북의 자산운용사 육성과 지원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도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 기업을 집적시켜 지역을 넘어 국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국민연금공단과 1,437조 원에 달하는 전 국민의 금융자산을 품은 지역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지난 1월 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금융생태계 확장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금융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전주 이전 이후 전북에 뿌리내리며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주도 성장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전북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센터 건립 등 기반 조성과 자산운용사를 지원하는 일에 전북도가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산업 육성과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금융그룹·자산운용사·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금융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3일 전주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김성주 이사장(오른쪽)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자산운용 금융생태계 조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120일 대장정' 돌입

어제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작
시도의원·구시의원 등 예비후보는 20일부터 등록
본 선거 일정 5월에 집중... 14~15일 정식 후보 등록
21일부터 공식 선거기간... 사전투표·본투표 등 실시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일정이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선거일 전 120일인 3일을 기점으로 지역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긴 여정이 시작됐다.

2월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는 선거의 가장 첫 단계로,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 등을 포함해 출마를 결심한 이들이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절차이다.

이어지는 일정에 따라 후보군 윤곽은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오는 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정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3월 22일에는 군의원, 군의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진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정성을 위한 각종 제한 규정도 시행된다. 우선 각종 선관위 위원,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반드시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한 같은 날인 3월 5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 보고가 전면 금지되며, 4월 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된다.

선거의 하이라이프인 본 선거 일정은 5월에 집중돼 있다.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진행되며,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 5월 21일부터는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 본격적인 유세전이 펼쳐진다. 선거인명부는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유권자들은 5월 말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개표에 착수하여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선거 종료 후 후보자들은 6월 1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2일 이내에 비용 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잡히고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후보들 간 치열한 눈치 작전과 함께 선거에 대비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 성장전략 추진 과정에서 자칫 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 지역이 소외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에 가칭 '특별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북은 환태평양시대 새만금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5극 3특 '전북 소외' 우려... 당내 '특별한위원회' 구성하자"

'도지사 출마' 민주당 의원, "5극 성장 비례한 3특 지원 체계 당 차원에서 설계해야"

역시 타시도에 비해 탁월한 능력을 지니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그동안 낙후 탈피는 물론 지역경제 및 인력 창출을 비롯 강력한 발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일 이 의원의 보도자료를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일극을 넘어가기 위해 5극 초광역권을 키우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가 다시 한

번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나면 이는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5극 성장에 비례한 3특 지원 체계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초광역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통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특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새만금, 농생명산업,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균형 성장전략에서 3특에 분류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 인센티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제안한 가칭 '특별한위원회'는 민주당이 불공정한 감용관계의 민생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을지로위원회'처럼 5극 3특 구조 속에서 자칫 소외되고 역차별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3특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 구상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5극 성장전략에 상응하

는 3특 재정·정책 지원 원칙 마련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3특 우선 고려 기준 명문화 △특별자치도 권한과 재정 특례의 실질화 △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도 통합에 상응하는 시군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핵심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은 경쟁에서 이긴 지역만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강한 축과 함께 그 사이를 잇는 지역까지 함께 살리는 국가 전략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3특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오늘이 아름다운 무주

자연특별시 무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 자연특별시무주